

自然테마학습장 ‘곤충테마여행’

곤충의 성장과정 한눈에 곤충사육도구 구입 직접 사육 가능



“만물이 소생하는 봄, 녹음이 짙은 여름, 무수히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 산이 하얀 눈으로 뒤덮이는 겨울 등 사계절 언제나 변함 없는 초심으로, 또 자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곤충테마여행이 되겠습니다.”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356-1번지에 문을 연 곤충테마여행(www.insart-tour.co.kr)은 곤충농장으로 곤충사육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체험학습장으로 단체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정대훈(사진) 곤충테마여행 대표가 이러한 공간을 마련하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 자녀들에게 곤충의 삶을 알려주고 싶어 시작한 것으로부터 출발했다고 한다.

처음에 집에서 사육하다가 점점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남양주시에서 곤충테마여행을 운영하다

가 최근 이곳으로 옮겨 가게 됐다. 어린이들이 신기하게 하며 곤충을 관찰하고 직접 기르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친자연적 교육이 가능하다.

정 대표는 “어른들에게는 동심을, 아이들에게는 생명의 신비함을, 좀 더 쉽고 자연스러이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작은 농장을 꾸며 보았다”며 “오셔서 가족과 좀 더 가까워서 함께 충분히 호흡하며 삶의 재충전이 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곤충테마여행 가족코스는 개인가족 4인기준 5천원이며 셋트상품구입시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가족이 함께 자유롭고 여유로운 관람이 가능하며 곤충의 성장과정을 전시장 및 사육장 관람으로 알 수 있고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 곤충을 관찰 할 수 있다.

특히 곤충사육도구를 구매하여 직접 사육환경을 만들어 볼 수 있으며 농장내 모든 시설을 자유로이 사용 가능하다.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356-1번지에 문을 연 곤충테마여행은 곤충농장으로 곤충사육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체험학습장으로 단체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와 3쌍의 다리가 있다. 머리에는 입을, 더듬이, 겹눈들이 있다. 몸은 좌우대칭을 이룬다. 개방혈관계를 가진다. 배는 일반적으로 11마디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충이 되면 기능을 가진 부속 수가 없어진다. 호흡은 아가미, 기관 또는 기문을 통해 한다. 일반적으로 암·수가 분리되어 있다.

곤충테마여행에 관한 문의는 ☎ 031)532-5321번으로 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하계 영재캠프로 창의적 사고 신장

경기도과학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 주최



포천시 내촌면 신팔리 356-1번지에 문을 연 곤충테마여행은 곤충농장으로 곤충사육 및 판매를 하고 있으며 체험학습장으로 단체견학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과학교육원 부설 영재교육원(원장 이민구)은 영재교육대상학생 56명(고1)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5일부터 7월28일까지 제주도 일대에서 하계 영재캠프를 실시하고 8월1일 과학교육원 세미나실에서 탐구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와 과학 체험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과학태도의 신장이라는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현장탐구학습은 고등학교 1학년 과학영재학생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테마별 탐구과제를 제시했다.

테마별 탐구과제는 제주도의 지질과 용암동굴(대십이굴)의 생성과정 탐사, 동백동산의 식물상과 멸종위기 야생식물 탐구, 제주도 꽃자갈 식물 및 식생 연구, 제주 곤

충의 생태적 특성의 4가지로 구분하여 영재교육원 학생의 희망에 따라 사진 자료를 준비하여 현장에서 현장탐구를 실시하도록 했다.

현장탐구 학습의 주요 일정은 첫날 조별 연구방법을 현지 강사와 더불어 설계하고 둘째 날에 현장에서 테마별 현장 탐구학습을 실시했으며 셋째 날에는 제주도의 생태환경에 대한 제주대학교 오홍식 교수의 특강과 함께 현장에서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여 마지막 날에 발표대회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운영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꾸준한 과학영재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영재교육원(대십이굴)의 생성과정 탐사, 동백동산의 식물상과 멸종위기 야생식물 탐구, 제주도 꽃자갈 식물 및 식생 연구, 제주 곤

찾아가는 창의성 교육 순회연수

경기도교육청 창의성 직무연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8월7일부터 8월11일까지 초·중등교사 111명을 대상으로 수원대평화대학에서 창의성 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지난 5월17일부터 1개월간 실시한 ‘찾아가는 창의성교육 순회연수’의 심화과정으로 당초2개 반을 운영하려고 했으나 더운 열기 속에서도 창의성 교육에 열정을 갖고, 희망하는 교사가 많아 3개 반으로 확대 편성했다.

학생의 창의력 신장과 교원의 창의성교육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의 질 제고를 위해 새로운 창의적 사고 기법과 국어, 수학, 음악, 미술, 체육 등 교과별 창의성 사고기법의 적용 방법을 다양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창의성 교육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무한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며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 발현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교육사업으로 경기교육의 기본방향과 주요 시책으로 ‘창의력 신장 교육’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창의성 교육 실천사례 발표대회, 창의적 학습결과물 경시대회, 경기창의 축제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로 창의성교육을 활성화하여 창의성 교육에 대한 참여의식을 제고하고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송추연수원에서 8개 시군 공립유치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수재민 돕기 너도나도 한마음

경기도교육청 제2청 강원도 복구활동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 제2청 직원 35명은 8월3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강원도 인제군 인제를 가리 지역의 수해복구 작업에 나섰다.

직원들은 집중호우로 쓸려 내려간 바위와 토사로 막혀버린 배수로 100m를 복구하였고, 산사태로 반파된 가옥의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 등에 구슬땀을 흘렸다.

지원에 나선 한 직원은 “상상

했던 것보다 피해정도가 더 큰 것 같고 자원봉사를 나와 이렇게 수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마음이 뿌듯하다”고 밝혔다.

이번 피해지역 복구활동을 지원 받은 수재민 김가정·진익환씨는 “도저히 수해복구에 염두도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 경기도 최우수상 수상

고등학교 5개팀 참가, 최우수상, 금상, 은상 수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지난 7월22일 한국과학교육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제14회 한국학생과학탐구올림픽’과 과학과 과학탐구 전국대회에 경기도 고등학교 5팀이 참가하여 최우수상과 금상, 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전국대회는 각 시·도 교육청 예선을 거쳐 선발된 일반계고등학교부의 34개팀과 전국 18개 과학고등학교 대표 36개팀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벌였다.

대회 결과 일반계 고등학교부에서 서현고등학교팀(고2 유민곤, 고2 이지영, 지도교사 강민주)이 최우수상을, 과학고등학교부에서는 경기과학고등학교팀(고2 김보희, 고2 강소연)이 금상, 의정부과학고등학교팀(고2 김재민, 고2 이동수)이 은상을 수상하여 경기과학교육의 우수성을 자랑했다.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부에서는 2005년 흥진고등학교에 이어 2년 연속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하여 경기과학교육이 우리나라 과학의 발전을 주



서현고 최우수상 수상(좌로부터) 유민곤 학생, 강민주 지도교사, 이지영 학생

도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기초과학의 이해와 적용·분석 능력 등 고도의 과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제 14회 한국 학생과학탐구올림픽 대회’ 시상식은 2006년 10월21일 실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과 금상 수상학생 및 지도교사는 11월에 학생 과학국제교류행사로 중국을 탐방하게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문화체험기

김수정 학생명예기자(갈림중학교 2학년)

벌써 7박 8일의 대 정정이 끝났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포기할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지만 지금은 하릴 더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내 파트너는 한 살 어린 일본파트너, 나보다 한 살 위인 중국 파트너 모두 두 명이었다. 나는 외동딸이라 항상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인데 동생과 언니가 생겼다는 생각이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다. 그래서인지 만난 첫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막막했다. 개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풍다들다 뛰고 나 혼자 즐거웠다. 그래서 잘 못하는 영어로 말도 많이 시키고 바다 댕기지로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난리를 쳤다.

집에 와서 친구들은 어둑 때문인가 먼저 일찍 잠을 청했지만 나는 기쁘고 흥분이 되어서 그날 밤새도록 잠을 뒤척였다.

다음날 아침에는 엄마께서 끓여 주신 된장찌개와 김치, 진미찌 볶음, 말치 볶음 등을 만들어 주셨는데 물 다 밥을 잘 안 먹었다. 걱정했던 마음에 왜 안 먹고도 물어봐서 너무 땀과 했다. 그래서 너희 나라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물어보았다. 일본 음식은 다 달거나 짜다고 했다. 중국 음식은 향신료의 향이 강하다고 말해 주었다. 아무리 가까운 나라지만 문화차이가 많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게 되었다. 둘째날과 셋째날은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에 맞춰서 행동했는데 그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셋째날 실시한 각종 문화 견학이었다.

우리 한국팀은 고전무용 옷 패션쇼와 내가 속해있는 사물놀이팀을 선보였다. 물도버는 전통의상을 입고 물도바 민요와 재미있는 일종의 풍자극을 선보였으며 벨라루시 역시 노래를 선보였다. 인도는 국기 모양과 관련된 전통춤을 선보였는데 정말 멋있었고 인기가 대단했다.

우리 한국팀은 고전무용 옷 패션쇼와 내가 속해있는 사물놀이팀을 선보였다. 물도버는 전통의상을 입고 물도바 민요와 재미있는 일종의 풍자극을 선보였으며 벨라루시 역시 노래를 선보였다. 인도는 국기 모양과 관련된 전통춤을 선보였는데 정말 멋있었고 인기가 대단했다.

나 역시도 눈을 떼지 않고 구경하기 바빴다. 일본은 핫비, 중국은 풍뎅을 선보였다. 각 국 문화는 너무나도 달랐

I will miss you



지만 중요한 건 모두가 즐기고 행복했고 그 중요한 자리에 함께 했었는데 의미가 있다. 다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로 내가 대견스러웠다. 한국뿐 아니라 7개국이 함께 했다는 그 자리에 흥분과 설레임 그리고 자랑스러움으로 이 가슴은 뛰었다.

4일부터 6일까지는 우리 가정의 친구들을 데리고 함께 움직이는 기간이었다. 4일날은 친구 은혜네와 함께 수목원을 구경했다가 봉선사에서 한국 사람과 다도를 배웠다. 인도친구인 일본이건 중국, 한국 모두 진지하게 다례를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다.

우리나라 다도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위엄과 우아함이 있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한국사람들의 정서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다도처럼 나도 각국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겸손함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시골마을에서 저녁을 먹고 뒷풀이로 즐거운 노래방에 가서 각국 노래 실력을 겨루었다. 내 생각엔 어디건 모두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민족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5일에는 역시 은혜네와 서울 내들이 집에 올랐다. 경북공, 국립중앙박물관, 나 역시도 눈을 떼지 않고 구경하기 바빴다. 일본은 핫비, 중국은 풍뎅을 선보였다. 각 국 문화는 너무나도 달랐

해 모두 감탄을 했다. 웬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찌어찌 힘이 들어갔다. 특히 이날 집에서 각국 의상을 입고 고공스쿠터 안에서 사진도 많이 찍고 집으로 돌아와 이불그림의 마무리와 주스, 이메일을 교환하며 영원히 우정을 다짐하고 어머니가 준비하신 선물을 받아 떠날 준비를 꼼꼼히 했다.

드디어 마지막 날이 다가왔다. 저녁 만찬이 끝난 후 민중이 교차했다. 못야 할지 몰아 할지 모란 기분이었다. 다만 그 날은 못내 아쉬워 많이 우울했던 날이었다. 7개국 학생들이 모두 단체사진을 찍고 마지막으로 파트너를 안았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만 주 언니를 안으면서 눈물이 났다. 내가 우니가 주 언니 역시 눈물을 보였다. 땀이라는 말을 나에게 거둬주고 I will miss you 라고 계속 얘기해왔다. 엄마는 고개를 돌리면서 눈물을 감추셨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다. 엄마, 나, 레나, 주 언니 모두가 서로를 아끼고 가족같이 사랑했다는 것을...

비록 내 친구 말처럼 만남은 짧고 이별은 길지만 그래도 나는 믿는다. 어날 우리가 한 자리에 만났을 때 멋진 사람들이 되어 오늘의 이야기를 웃으면서 기억하리라라는 것을.

김연수 학생명예기자(동남중학교 2학년)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내가 포천시에서 개최한 홈스테이를 했을 때 첫날에는 다른나라 아이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할 정도로 쑥스럽고 간단한 영어단어 밖에 할 줄 몰랐다.

나의 홈스테이 파트너 리아가 내게 우리집에서 말을 걸때도 대답도 하지 못하고, 많이 낯설어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친구들과 태국친구들 모두 영어를 접하게 되고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다보니 처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았다.

역시 영어는 부딪혀야 실력이 향상된다고 했다. 3일간의 공동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나머지 4일은 홈스테이를 하면서 리아에게도 한국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민족촌과, 동대문, 서울나들이에 나섰다. 그리고 8월7일 마지막!

오랜시간이 지나야 할 줄 알았던 길게만 생각했던 일주일의 코앞에 와 있었던 것이었다. 이제 막 친구들과 서로를 알아가려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금방 지나 버린 것이다.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꼈다. 내겐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에 차 나리에서 서로 친구노 하고 서로 이름을 기억하면서 추억을 만들고 새로운 경

일주일간의 소중한 추억!



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

서로를 알아가면서, 문화도 접하는 홈스테이가 포천시에서 시작해 우리나라 전국으로 퍼져 나가기 우리나라 학생들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이 기회에 떨쳐 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별을 정말 실감하게 되었을 때 단체사진을 찍고 일주일동안 함께 했던 외국친구들을 돌려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그동안 우정과 추억을

많이 배우고 간직했다 보다. 서로가 영영 헤어져 다시 만나기를 원했다.

나는 이런 홈스테이를 처음 해보면 서 조금이나마 영어에 대한 적극적인 자신감을 갖고 더 나아가 바다 댕기지가 아닌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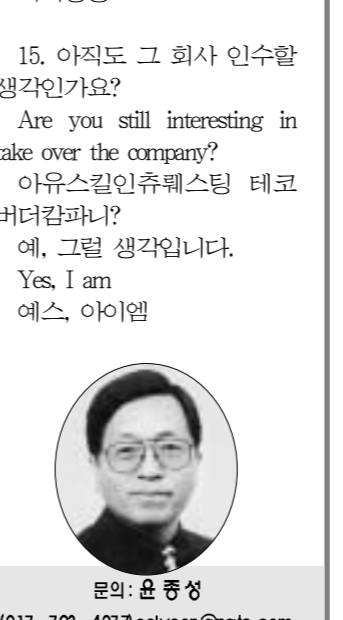
절차 나아가 세계에서라도 많은 비록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마음만은 같다는 그런 믿음을 전해주고 싶다.

윤종성의 미륵어따라가기

13. 이거 참 예쁘네요.
This is so beautiful.
디스쓰비우리를 하나 가지세요.
You may take one.
유메이태익원

14. 이 자리 사람 있나요?
Is this seat taken?
이스디셋테이큰?
빈자리 같은데요.
I don't think so.
아이동영소

15. 아직도 그 회사 인수할 생각인가요?
Are you still interesting in take over the company?
아유스킬인슈퍼스팅 테코 버더갑카니?
예, 그럴 생각입니다.
Yes, I am
예스, 아이엠



문의: 윤 종 성 (017-723-4977)cdyoon@nate.com

경기도교원미술작품 전시회 8월7일 막내려

학생들 미술과목 수행평가과제 해결의 기회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지난 8월2일부터 8월7일까지 수원 미술관에서 주최한 제12회 경기도 교원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8월7일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그동안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이 학교 현장에서 후진양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면서 틈틈이 창작활동을 통해 준비한 215점이 전시되었으며 특히 뜻깊은 것은 퇴직교원 및 원로교원의 작품 6점도 함께 전시되어 다른 어떤 전시회보다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이번 전시회는 전시기간동안 날씨가 매우 무더웠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1천200명, 학생 3천500여명, 일반인 1천여명 등 약 5천700여명

이 관람했다.

이번 전시회는 학생들에게 방학을 이용한 선생님들의 예술혼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미술과목의 수행평가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전시회가 성원화, 한국화, 판화, 디자인, 공예, 서예 등 미술의 모든 분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였고 선생님들이 차곡차곡 쌓아온 삶의 자취가 고스란히 예술의 향기로 피어난 작품을 볼 수 있는 자리와 더불어 가족의 정취와 함께 참신한 흥미를 만들 수 있는 알찬 전시회였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진춘)은 지난 8월2일부터 8월7일까지 수원미술관에서 주최한 제12회 경기도교원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 8월7일 막을 내렸다.